

〈열녀함양박씨전〉의 구조와 ‘사실-허구’의 소설적 상상력

The Structure of “YeolnyeohamyangParkSejeon” and the Novelistic Imagination of ‘Fact and Fiction’

유광수*

국문요약 〈열녀함양박씨전〉의 내용, 구조, 장르 귀속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다양한 이유는 〈열녀함양박씨전〉이 담고 있는 내용이 ‘열녀’, ‘열녀의식’, ‘자살’ 등 논점이 다양한데다가, 이를 바라보는 당대 사람들의 시선과 작가 박지원의 시선, 아울러 연구자들의 심정과 입장이 혼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호함과 혼란은 일정 부분 〈열녀함양박씨전〉이란 텍스트를 전략적으로 구성한 작가 의도 때문이기도 하다.

〈열녀함양박씨전〉은 열녀 의식을 고양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작가 박지원은 열녀 풍습이 거부할 수 없는 풍조라는 것은 알지만, 그런 풍습을 고양하거나 상찬하려고 해당 글을 지은 것이 아니라,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스스로 극단적 열녀가 되려 한 중인 계급 여성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렇게 자살하지 않으면 열녀가 아니란 식으로 팽배해진 당대 열녀 풍조를 비판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작가는 말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기묘한 방식으로 구조화하여 〈열녀함양박씨전〉을 창작해냈다. 즉, 작가는 소설적 상상력을 통하여 사실과 허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열녀함양박씨전〉을 지었는데, 그 결과 텍스트는 전이라 할 수도 없고 소설이라 할 수도 없는 ‘전과 소설의 결합형’이 되었다. 함양 박씨의 자살 이야기를 비판하면서도 우회적으로 말하기 위해 엮인 여인 이야기를 창작해서 함양 박씨와 극명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조시키면서도, 함양 박씨 이야기 뒤에 논평으로 위치해야 할 내용을 서문으로 둘러싸서 산문에서 굳이 사용할 필요 없는 ‘병서(并序)’라는 언급까지 써가며 우회하는 글쓰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핵심어 열녀함양박씨전, 이데올로기, 열녀, 박지원, 사실-허구

- 차례**
1. 서론
 2. 구조의 스토리텔링 방법
 3. ‘사실-허구’의 소설적 상상력
 4. 결론

대한 연구를 비롯해 장르 귀속 논의까지 폭넓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¹

1 초기 연구로 후속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로는 〈열녀함양박씨전〉의 소설적 요소와 傳의 요소를 구분하고 연암의 집필 의도를 당대 풍조에 대한 비판으로 본 연구(김일근, 『燕巖小說의 近代의性格』, 『어문집』 1, 경복대, 1956, 161~186쪽), 이 텍스트를 연암의 방대한 작품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열녀함양박씨전〉을 소설로 본 연구(이기원, 『연암소설연구』, 을유문화사, 1963, 736~756쪽), 구조를 논의하면서 제명을 “열녀함양박씨전 병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고 傳에는 소설적인 것도 수필적인 것도 있다며 “훌륭한 한 편의 수필”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성현경, 「〈烈女咸陽朴氏傳〉과 〈烈女咸陽朴氏傳并序〉의 構成」,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261~265쪽), 텍스트의 뒷부분인 함양 박씨에 대한 서술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전”이라고 본 연구(박희영,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281~287쪽), 텍스트에 형상화된 방식을 면밀하게 논의하여 각각의 의미와 장르적 성격을 분석한 연구(박일용, 「〈烈女咸陽朴氏傳并序〉의 형상화 방식과 그 장르적 성격」,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양포이상택교수환력기념논총간행회, 집문당, 1998, 571~594쪽) 등이 있다.

1. 서론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용과 구조에

내용에 대해서는 함양 박씨를 열녀로 기리고 칭송하는 내용이라는 주장과² 반대로 열녀 의식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면서 열녀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란 주장이³ 대립되었다. 열녀 의식의 고양이란 시각은 박지원이 연행(燕行)하는 동안 중국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열녀 풍습에 대해 주고받은 내용을 보아도 그러하며, <열녀함양박씨전> 외에 앞서 전통적인 시각에서 열녀를 상찬하는 3편의 열녀전을 지었다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지원이 연행하는 도중 중국 문사들과 교류했는데, 중국 문사들이 열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볼 때 오히려 박지원은 전통적인 열녀 시각을 드러냈고, 또 다른 그가 지은 열녀전들의 내용을 보면 전통적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기에 이 <열녀함양박씨전> 역시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열녀전이란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같은 사실을 두고 반대 입장의 견해는 정반대다. <열녀함양박씨전>을 지을 때는 연암의 노년 시절로 열녀에 대한 시각이 젊은 시절 연행 당시의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며, 또한 3편의 열녀전의 내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열녀와 열녀 의식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변해갔고 <열녀함양박씨전>은 그렇게 변화된 의식의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⁴

<열녀함양박씨전>의 핵심인 열녀 문제에 대해 이렇

- 2 대표적 논의로 강명관, 「<열녀함양박씨전> 재론」, 『동양한문학회』 32, 동양한문학회, 2011, 5~24쪽 참조.
- 3 김일근의 연구로 시작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논의의 초점과 대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열녀 의식 비판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최지녀는 연암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미세하긴 하나 인간적인 연민”을 읽어냈는데(최지녀, 「<열녀함양박씨전> 연구」, 『국문학회』 16, 국문학회, 2007, 165~186쪽), 이는 본고의 입장과 비슷하다. 그러나 연암이 열녀 풍속에 대해 ‘유보적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고의 주장과는 다르고, 두 여성의 대비를 단순히 여성의 소수성을 조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쉽다. <열녀함양박씨전>은 두 여성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고 있으며, 그 본질은 ‘양반 여성으로 守節하며 죽지 않음’과 ‘중인 여성으로 극단적 殉節을 감행함’의 대조이기 때문이다.
- 4 이에 대한 논의는 신향림, 「열녀전의 사회적 역할과 박지원의 <烈女咸陽朴氏傳>」, 『동아한문학회』 4,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8, 155~186쪽; 김수중, 「<열녀함양박씨전>에 나타난 정절의식 분석」,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학회, 2011, 63~83쪽 참조.

게 전통적 열녀관에 입각해 지었다는 시각과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 열녀 의식을 비판하는 것이란 시각의 대립은 연구의 다양성이나 연구 입장의 다층성 정도와는 다른 좀 심각한 문제 상황이다. 동일한 텍스트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각이 옳든 분명한 사실은 작가 박지원이 의도하고 지향했던 입장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연구의 입장 차이는 늘 상존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극명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녀함양박씨전>의 핵심 의미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이 텍스트가 담고 있는 것보다 담아내는 방식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방식에 주목하는 구조를 다루는 연구에서도⁵ 여전히 열녀 의식을 고양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비판하려는 것인가의 두 시각으로 나뉘어 있으며,⁶ 여기에 <열녀함양박씨전>이 ‘전(傳)’인가 ‘소설(小說)’인가의 장르 문제까지 가세하면 서⁷ <열녀함양박씨전>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큰 입

- 5 대표적으로 구조를 나누는 논의는 성현경 이후 다양하게 이어졌는데, 대체로 크게 두 도막으로 나누어 본다. 즉, ‘처음~엽전 굴리는 여인~논평’과 ‘함양 박씨~논평’으로, 논자에 따라서는 앞부분 전체를 序로 이해하고 함양박씨 관련 내용을 傳의 본편으로 본다.
- 6 서술 방식과 구조에 대한 논의는 성현경, 박일용 등의 초기 연구 외에도 이월영, 「<열녀함양박씨전> 연구: 문학적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159~187쪽; 정보미, 「<열녀함양박씨전>의 서술 목적과 서술 방식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41, 2013, 79~102쪽; 박수밀, 「<열녀함양박씨전>의 구조와 글쓰기 방식」, 『한국한문학회』 53, 한국한문학회, 2014, 391~421쪽; 한동, 「<烈女咸陽朴氏傳>의 구조와 정체 재검토」,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3(3), 순천향대 인문학연구소, 2014, 47~85쪽; 최전집, 「<열녀함양박씨전>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 『문화와융합』 49,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503~540쪽 참조.
- 7 <열녀함양박씨전>을 ‘傳’인가 ‘소설’인가 외에 ‘수필’이나 ‘한문단편’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수필이나 한문단편이란 주장은 이 텍스트가 전과 소설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제3의 유보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르론에서는 명징하게 둘 중 하나의 선택 문제로 대립된다 할 수 있다. 즉, 각종 야담집에 수록된 각편들을 모두 “한문단편”이라 지칭하지만 필요에 의한 유보적 호칭이지 장르적으로 규정한 명칭은 아니다. 현실적 필요에 의해 <해생전>처럼 소설로 명명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그렇지 못한 것들까지 모두 “한문단편”으로 범박하게 묶어 부르는 것이다. 실제로 <열녀함양박씨전>을 수필로 처음 주장한 성현경도 “典型的인 <傳>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며, “<傳>에는 소설의 인 것도 있고 隨筆의 인 것도 있다”는 정도로 유보적 의미에서 ‘수필’이라고 주장한 것이었다(성현경, 앞의 논문, 261~265쪽). 그러므로 傳인지 소설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⁸

사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선뜻 동의하거나 부정하지 못해 명징하게 논하지 못하는 난감한 문제가 있는데 ‘함양박씨가 열녀로서 자살한 일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이다. 즉, 그녀가 지아비의 죽음 이후 소상(小祥), 대상(大祥)을 예법에 따라 마친 후 지아비를 따라 죽은 것이 과도하다는 시각은 현대인에게는 상식이지만 당대인들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기에 그러하며, 이에 대한 연암의 입장이 어떠한지까지 함께 숙고하다 보면 같은 연구자의 논의에서조차 명확하기보다는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함양박씨의 자살 문제가 초점인지 함양박씨의 열녀 초점인지도 역시 모호해지기까지 한다.⁹ 즉, 연구는 ‘작가는 열녀 의식을 고양하려는 의도인가? 비판하려는 의도인가?’와 ‘작가는 함양박씨의 자살을 옳다고 보았는가? 옳지 않다고 보았는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열녀’, ‘열녀의식’, ‘자살’ 등의 문제와 이를 바라보는 ‘당대 풍조’, ‘당대 사람들의 반응’, ‘작가 박지원의 입장’, ‘〈열녀함양박씨전〉 텍스트의 지향’ 등에 대한 분석이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작가 박지원이 고안해낸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¹⁰ 그러므로 이런 내

용은 ‘〈열녀함양박씨전〉은 전(傳)인가? 소설(小說)인가?’와 ‘〈열녀함양박씨전〉의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는 무엇을 지향하고자 함인가?’ 등의 텍스트 형식과 함께 긴밀하게 연관 지어 논의되어야만 한다. 이런 형식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여전했던 이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와 내용의 상관관계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즉, ‘열녀’, ‘열녀의식’, ‘자살’ 등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말해야만 하는 안의현 사또였던 박지원의 당시 상황과 그의 글쓰기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열녀함양박씨전〉의 구조를 다섯으로 구분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앞선 서문이 구조상 마지막 평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병서(并序)’라는 명칭을 써가면서까지 구조화했음을 분석하겠다. 이를 통해 ‘엽전 굴리는 여인 이야기’와 ‘함양박씨의 자살 이야기’의 세 가지 대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낸¹¹ 박지원의 글쓰기 방식과 작가 의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열녀함양박씨전〉은 작가 박지원이 의도적으로 조직화해낸 소설적 기교가 적용된 독창적 글쓰기 시도였음을 밝히겠다.

2. 구조의 스토리텔링 방법

〈열녀함양박씨전〉의 구조를 세분하면 ‘서문-첫째 이야기-논평-둘째 이야기-논평’으로 나뉘 볼 수 있다.¹²

8 이월영이 작가의 문학적 전략을 ‘드러냄’과 ‘은폐’, ‘대비’와 ‘조응’의 교차관계로 분석한 것은 탁견이며, 가치와 인물을 구분하여 서술 목적을 살펴야 한다는 정보미, 썬보다는 썬 이데올로기를 부각시켜 비판한 이승은 등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들 논의는 양반 여성 아닌 중인 여성의 불필요한 과잉 감정과 죽음 문제까지 나가지 못했고, 작가 연암의 의도적으로 논평을 서문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글쓰기 전략을 구사했음을 지적하지는 못했다. 이월영, 앞의 논문, 159~187쪽; 정보미, 앞의 논문, 79~102쪽; 이승은, 「감정 조작과 과부: 열녀담의 정전화: 〈열녀함양박씨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9, 41~69쪽 참조.

9 이를테면, 함양박씨의 열녀 의식에 대해 논고 앞에서는 긍정하는 논의를 하다가도 뒤에서는 부정하는 논의로 흐르기도 하는 식이다. 그래서 박씨에 대해서 작가가 연민의 정을 지니면서도 비판한다는 모호한 서술이 되곤 한다. 이는 ‘열녀’, ‘열녀의식’, ‘자살’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당대 사람들’과 ‘풍조’, ‘작가 박지원’, ‘해당 연구자의 심정과 입장’ 등이 논고의 국면마다 혼재되어 드러나기 때문이다.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론하는데, 그런 작가 박지원의 구조적 고안이 결국 지금의 연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논의를 분분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박지원의 글쓰기 전략과 구조화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1 연암이 두 개의 상반된 내용을 배치하고 제명을 ‘열녀함양박씨전’으로 했다면 두 이야기의 관계 및 그렇게 연결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연암의 주제 의식이란 김철조의 지적은 본고의 입장과 같지만, 앞의 서문과 엽전 굴리는 여인 이야기에 핵심과 주제가 있다고 한 것이나 그런 “앞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뒤의 함양박씨를 열녀로 입전하는 열녀전의 형식을 교묘히 이용”했다고 보는 입장은 본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12 구조를 논하는 초기 연구부터 이렇게 나누었다. 성현경, 앞의 논문, 261~265쪽; 박일용 앞의 논문, 571~594쪽; 박기석 「〈烈女咸陽朴氏傳〉 연구」, 『국어교육』 111, 한국어교육학회, 2003, 343~365쪽 참조.

- ① 서문¹³
- ② 첫째 이야기: 엽전 굴리는 이야기
- ③ 논평
- ④ 둘째 이야기: 함양 박씨 이야기
- ⑤ 논평

구조를 셋으로 보아 ‘서문 - 첫째 이야기 - 둘째 이야기’라고 한다면, 논평 ③과 ⑤는 각각 바로 앞 이야기의 논평으로 이해된다. 놓인 위치도 그렇고 자연스레 이어지는 내용도 그렇다.

첫째 이야기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한다. 엽전을 굴리며 수절한 여인과 그녀의 아들들이 막으려 했던 어떤 남자의 선대에 있었던 수절 여인이다. 첫째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양반 여인이 수절하며 젊은 시절 정욕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그녀는 훌륭한 열녀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느 여인 역시 열녀임이 분명하다. 이야기 속 그 여인이나 엽전 굴린 여인이나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부의 행실에 대한 풍문을 근거로 그 집안 후손의 환로(宦路)를 막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꼬집고 있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수절하는 열녀로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울 뿐만 아니라, 열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까지 내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첫째 이야기에 대한 논평 ③에 잘 드러난다.

논평 ③: 아! 그 모진 절개와 맑은 행실이 이와 같은 데도 당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이름이 묻혀 후세에도 전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부가 의를 지켜 개가하지 않는 것이 마침내 온 나라의 상법(常法)이 되었으므로, 한번 죽지

않으면 과부의 집안에서 남다른 절개를 보일 길이 없기 때문이다. (100쪽)¹⁴

여기서 ‘이처럼 괴롭게 절개를 지킨 과부’는 엽전을 굴리며 젊은 날의 정욕을 참아낸 첫째 이야기 속 여인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하며, ‘한번 죽지 않으면 과부의 집안에서 남다른 절개를 보일 길이 없’다는 언급은 환로가 막힐 뻔한 후손의 선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죽지 않고 살았기에 뛰어난 절개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고통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둘째 이야기 ④는 앞의 첫째 이야기 ②와 구분되는데, 그것은 죽어야 열녀로 드러난다는 논평 ③ 내용 때문에 더욱 분명해진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두 이야기가 열녀 문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문제를 통해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엽전 굴리던 여인은 자살하지 않았지만 훌륭한 열녀라고 말한 후에 함양 박씨의 자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함양 박씨가 열녀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그녀가 자살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죽음으로 열녀임이 드러났다’는 점을 논평 ③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세 여인 모두 이미 충분한 열녀지만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로 인해 열녀로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논평 ③을 통해 작가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죽음’ 문제인데, 작가 박지원은 여인의 자살을 필수적 요소로 보고 있지 않다. 이미 충분한 열녀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필요에 따른, 스스로 자신이 열녀임을 외적으로 보여야만 할 이유에 의해 자살을 감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자살을 택해서 열녀임을 외적으로 강조해서 보이는 이유는 첫째 이야기에서 주요하게 부각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다. 하나는 ‘수절하는

13 본고에서 ‘序文’은 엽전 굴리는 여인 이야기 앞의 내용을 한정해서 지칭하기로 한다. 논자에 따라 序文을 엽전 굴리는 여인 이야기와 논평까지 보기도 하고, 이를 원전에 적힌 “并序”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본고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원전에 적힌 ‘并序’라는 언급은 작가 박지원의 전략적 언급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14 본고에서 인용은 박지원, 신호열·김명호 역, 『국역 연암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4를 사용하고 해당 쪽수를 인용문 끝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한다.

내내 시달리게 될 인간 본연의 정욕' 문제와 다른 하나는 '훗날 자식의 환로(宦路)가 막힐지도 모른다는 우려' 문제다. 그렇다면 둘째 이야기(④) 속 함양 박씨가 자살을 택한 이유는 이 두 이유 중 어떤 이유로 감행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일단 둘째 이야기에 대한 논평(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논평(⑤):

(⑤-a) 얼마 후, 함양 군수인 윤광석 사또가 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느낀 바가 있어 열부전을 지었고, 산청 현감 이면제 사또도 박녀를 위해 전을 지었으며, 거창의 신돈항은 후세에 훌륭한 글을 남기고자 하는 선비였는데, 박녀를 위하여 그 절의의 전말을 엮었다.

(⑤-b) 생각하면 박녀의 마음이 어찌 이렇지 않았으랴! 나이 젊은 과부가 오래 세상에 남아 있으면 길이 친척들이 불쌍히 여기는 신세가 되고, 동리 사람들이 함부로 추측하는 대상이 됨을 면치 못하니 속히 이 몸이 없어지는 것만 못하다고.

(⑤-c) 아! 슬프구나. 성복을 하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장사 지내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요, 장사를 지내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소상(小祥)이 있었기 때문이요, 소상을 지내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대상(大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상이 끝이 났으니 상기(喪期)가 다한 것이요, 한날 한시에 따라 죽어 마침내 처음 뜻을 완수했으니 어찌 열녀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 [豈非烈也]. (102~103쪽)¹⁵

⑤-b를 보면, 작가는 박씨가 남편 없이 청상과부로 지내는 자신을 바라볼 친척들의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억측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는 첫째 이야기 속 두 여인의 모습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나이 젊은 과부가 오래 세상에 남아 있으면 길

이 친척들이 불쌍히 여기는 신세'가 된다는 것은 수절하는 동안 시달릴 인간 본연의 정욕 문제를 말한다는 점에서 엽전 굴리는 여인의 모습이고, '동리 사람들이 함부로 추측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환로가 막힐 뻔한 후손을 둔 선대 여인의 모습이다. 즉, 함양 박씨가 자살을 택한 이유는 첫째 이야기에서 지적한 두 문제 모두 때문에 죽게 된 것이란 추정을 박지원이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연암의 의도적 글쓰기 전략에 의한 의문스런 서술이지 연암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다.¹⁶

우선 남편 없이 홀로 수절해서 살아가야 할 긴 날들에 대한 고통 때문에 자살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함양 박씨가 "사실은 끝내 빈 옷만 지켰다고 합니다(102쪽)"라고 언급한 것처럼 이미 병약한 남자와 혼약을 맺은 것은 정욕과 같은 인간적 감정으로 인한 결연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며, 또한 "전날 재봉한 옷들은 누구의 몸에 맞게 한 것이며, 누구의 옷이라 불렀던 것입니까?(102쪽)" 등과 같은 발언과 입장으로 성혼을 강행하고 남편의 죽음 이후 자살을 택한 것은 막막하게 홀로 살아가야 할 고통 때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자손의 훗날 벼슬길이 막힐 우려 때문에 스스로 열녀임을 드러내기 위해 자살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함양 박씨는 그야말로 빈 옷만 지켰기에 슬하에 자식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자손의 앞날에 대한 걱정은 없다.¹⁷

결국 함양 박씨의 죽음은 첫째 이야기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고, 유교적 관념 때문임이 분명하다. 그 점을 작가가 ⑤-c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함양 박씨는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이 죽은 그때 죽으려 했다는 의미를 담아 서술하고 있다. 이는 첫째 이야기에서

¹⁶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론한다.

¹⁷ 물론 실제로 함양 박씨가 정욕의 문제를 고민했고 그로 인해 자살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실존 인물 함양 박씨를 서사에서 포착해서 지금처럼 〈열녀함양박씨전〉으로 서술해 놓은 작가 의도를 생각해 보면, 연암은 박씨가 정욕 문제나 후손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젖어 단호하고 즉각적인 자살을 꾀한 것이라고 포착해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¹⁵ 논평(⑤)은 내용에 따라 셋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a: 함양 박씨에 대해 열녀전을 지은 사람들 언급', 'b: 박씨 자살 이유에 대한 추측', 'c: 박씨에 대한讚이다.

제시한 두 가지 이유 같은 고민과 생각이 끼어들 여지도 없이 즉각적이고 단호한 죽음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즉, 이런 함양 박씨의 자살은 이데올로기적 관념에 따른 행동이지 남편을 사랑한 나머지 선택한 것이나 인간적 감정, 인간 본연의 음양과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상을 통해, 첫째 이야기와 둘째 이야기가 대조된다는 점이 분명하고 그것이 죽음의 문제로 초점화되었다는 것도 분명하며, 첫째 이야기의 여성이 인간적 감정과 정욕에 대해 보여주었다면 둘째 이야기의 여성인 함양 박씨는 유교적 관념과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서문
- ② 엽전 굴리는 이야기: 열녀지만 ‘죽지 않은’ 이야기 (인간적 감정과 정욕 문제)
- ③ 논평
- ④ 함양 박씨 이야기: 열녀로 ‘죽은’ 이야기 (유교적 관념과 이데올로기 문제)
- ⑤ 논평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작가 박지원은 함양 박씨의 자살은 과잉 행동이며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세례로 인해 빚어진 안타까운 죽음이란 점을 탄식하고 있다. 즉, 함양 박씨의 자살 이야기에 대한 논평(⑤) 마지막에 “어찌 열녀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豈非烈也]”라고 한 말은 열녀를 칭송하고 찬탄하는 언급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침혹되어 자살을 꾀한 그녀와 그렇게 만드는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이 뒤섞인 탄식으로 읽어야 한다. 이런 점은 두 이야기의 대조가 단순히 ‘죽음’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 문제를 포함해 모두 세 가지 측면에서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두 이야기의 대조는 첫째로 열녀지만 ‘죽지 않았다’와

‘죽었다’의 대조일 뿐만 아니라, 둘째로 열녀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와 ‘분명하게 드러났다’의 대조인 것은 쉽게 찾아진다. 과부는 모두 열녀지만 죽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두 이야기 사이에 낀 논평(③)을 통해 분명하면서도 쉽게 대조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대조는 ‘양반 여성’과 ‘중인 여성’의 대조다.¹⁸ 모두 열녀지만, 열녀여서 나쁠 것은 없지만, ‘열녀가 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는 양반 여성’과 ‘꼭 열녀가 될 필요까지는 없는 중인 여성’의 대조가 두 이야기를 통해 극명하게 제시된다. 꼭 열녀로 드러나야만 하는 양반 여성은 정욕에 시달리면서도 살았지만, 그래서 후대 자손 중 환로가 막힐 뻔했던 어떤 여인은 열녀로 잘 안 드러나기도 했지만, 꼭 열녀일 필요는 없는 중인 여성은 인간 본연의 문제나 정욕 문제도 아닌 자식들 문제도 아닌 그렇다고 남편을 사랑한 것도 아닌 주어진 관념적 이데올로기의 세례로 인해 죽음을 택했다는 대조다. 이는 첫 번째, 두 번째 대조를 모두 포함하는 본질적 대조다.

두 이야기(②-④)와 논평(③)을 다시 음미하면, 결국 함양 박씨는 죽지 않고 평생 수절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열녀이며,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중인 신분이었고, 심지어 자식조차 없었는데 과잉으로 열녀임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이 된다. 이는 엽전 굴리는 이야기에서 수절한 여인이나 주변의 시선과 풍문 때문에 환로가 막힐 뻔한 후손이 있었던 선대의 죽지 않았던 어느 수절 여인의 삶과 대조했을 때, 그야말로 허망하기까지 한 죽음이란 것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런 자살을 통한 열녀의 드러남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작가가 서문(①)에서부터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18 그간의 연구에서 ‘수절과 자살 문제’는 주목했지만 ‘양반 여인과 중인 여인’ 문제는 그리 주목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를 연결 지어 궁극적으로 〈열녀함양박씨전〉이 지향하는 바를 찾기 어려웠고, 열녀 풍습을 찬양하는 것인가 비판하는 것인가 등과 같은 상반된 시각을 보였던 것이다.

서문(①) :

(①-a) 제 나라 사람의 말에 “열녀는 지아비를 돌로 바꾸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를테면 <시경> 백주의 시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개가(改嫁)한 여자의 자손은 정직(正職)에는 서용(敍用)하지 말라.” 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반 백성과 무지한 평민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 마침내 우리 왕조 400년 동안 백성들이 오랫동안 앞장서 이끄신 임금님의 교화에 이미 젖어, 여자는 귀하든 천하든 간에, 또 그 일족이 미천하거나 현달했거나 간에 과부로 수절하지 않음이 없어 드디어 이로써 풍속을 이루었으니, 옛날에 칭송했던 열녀는 오늘날 도처에 있는 과부들인 것이다.

(①-b) 심지어 촌구석의 어린 아낙이나 여염의 젊은 과부와 같은 경우는 친정 부모가 과부의 속을 헤아리지 못하고 개가하라며 핍박하는 일도 있지 않고 자손이 정직에 서용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는 것도 아니건만, 한갓 과부로 지내는 것만으로는 절개가 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여, 왕왕 낮 촛불을 스스로 꺼 버리고 남편을 따라 죽기를 빌며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뛰어들어 죽거나 독약을 먹고 죽거나 목매달아 죽기를 마치 낙토를 밟듯이 하니, 열녀는 열녀지만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 (98쪽)

이렇게 “옛날에 칭송했던 열녀는 오늘날 도처에 있는 과부들”이라고 작가가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는 이어지는 ②에서 엽전을 굴리며 수절한 여인 역시 분명한 열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사실이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부는 모두 열녀라는 점보다 그런 열녀 문제는 양반들의 필요에 따라 생긴 것이란 점이다. 그러므로 양반이 아닌 “촌구석의 어린 아낙”이나 “여염의 젊은 과부” 같은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란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작가는 대놓고 “이것이 어찌 일반 백성과 무지한 평민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 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에 교화되어 양반이건 아니건 하나의 풍속이 되었다

고 탄식한 것이다.

서문(①)을 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서문 앞 대목(①-a)은 ‘수절하면 모두 열녀다’, ‘열녀는 양반 여성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양반 아닌 사람들도 교화되어 수절하더라’이다. 이 앞 대목에서는 자살이나 죽음의 문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자살까지 하는 문제는 서문의 뒷 대목(①-b)에 나오는데, 다시 한 번 과부는 수절만 해도 열녀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시골의 젊은 아가씨나 평민들의 젊은 과부들은 자손들의 벼슬길이 막힐 것도 없다는 사실을 또 반복해서 지적한 후, 그렇게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양반 아닌 여성들이 굳이 자살까지 시도하는데 그런 행동을 “마치 낙토를 밟듯이” 감행한다며 탄식한다¹⁹ 이렇게 실제 현실적 이유와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반 아닌 여성들이 자살을 극락을 밟는 듯한 착각으로 감행하는 것은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따른 행동임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 본연의 사랑의 감정이나 정욕의 괴로움에 따른 죽음이 아니란 점을 지적한 것이다.²⁰

서문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수절하면 무조건 열녀’이고, 둘째로 ‘열녀는 양반들에게나 필요한 일이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작가는 이를 풀어서 자살해야 열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더더욱 양반 아닌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문제적인 과잉 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문: (a)수절하면 모두 열녀다. (b)열녀는 양반 여인들

19 讚嘆이 아닌 歎息이 분명한 것은 “열녀는 열녀지만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한 것만 봐도 명확하다.

20 그동안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지점으로, ‘열녀’여야 하는 양반 여인은 정욕에 시달리면서도 살았지만, ‘열녀’일 필요가 없는 중인 여인은 이데올로기에 교화되어 죽음을 택했다는 점이다. 죽음 문제를 두고 말하기 저어되지만 사실 거꾸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자살을 택한다면 양반 여인이 그랬어야 했던 것인데, 양반 여인은 살고 죽을 필요도 없는 중인 여인이 자살하고만 것이다.

만의 문제다.

- ② 엽전 굴리는 이야기: 열녀지만 죽지 않은 ‘양반 여인’ 이야기 (인간적 감정과 정육 문제)
- ③ 논평
- ④ 함양 박씨 이야기: 열녀로 죽은 ‘중인 여인’ 이야기 (유교적 관념과 이데올로기 문제)
- ⑤ 논평

이야기 (인간적 감정과 정육 문제)

- ③ 논평
- ④ 함양 박씨 이야기: 열녀로 죽은 ‘중인 여인’ 이야기 (유교적 관념과 이데올로기 문제)
- ⑤ 논평
- ① 서문: (a)수절하면 모두 열녀다. (b)열녀는 양반 여인들만의 문제다.

이상의 분석과 서문의 내용을 통해 보면 서문의 위치가 문제적이라 사실이 드러난다. 이야기에 대한 작가의 의견과 논평은 이야기 시작 전이든 이야기가 끝난 뒤든 다 가능하고, 앞과 뒤 양쪽 모두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첫째 이야기(②)와 둘째 이야기(④)의 내용과 서문 내용을 보면, 서문은 함양 박씨 이야기(④)에 대한 논평으로 그 이야기 뒤에 붙는 것이 정합적으로 더 낫다.²¹ 그래야 ‘양반 여인과 중인 여인’의 대조가 명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서문 전부가 아니라 해도, 뒷부분(①-b)은 분명하게 함양 박씨 이야기 앞이나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작가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구성이다. ①-b는 중인 입에도 불구하고 과잉으로 자살한 함양 박씨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용의 자연스런 흐름과 작가가 두 개의 이야기를 대조시키면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감안한다면, <열녀함양박씨전>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구조화 되는 것이 더 명징하다.

- <1>
- ② 엽전 굴리는 이야기: 열녀지만 죽지 않은 ‘양반 여인’ 이

- <2>
- ① 서문: (a)수절하면 모두 열녀다.
- ② 엽전 굴리는 이야기: 열녀지만 죽지 않은 ‘양반 여인’ 이야기 (인간적 감정과 정육 문제)
- ③ 논평
- ① 서문: (b)열녀는 양반 여인들만의 문제다.
- ④ 함양 박씨 이야기: 열녀로 죽은 ‘중인 여인’ 이야기 (유교적 관념과 이데올로기 문제)
- ⑤ 논평
- <3>
- ① 서문: (a)수절하면 모두 열녀다.
- ② 엽전 굴리는 이야기: 열녀지만 죽지 않은 ‘양반 여인’ 이야기 (인간적 감정과 정육 문제)
- ③ 논평
- ④ 함양 박씨 이야기: 열녀로 죽은 ‘중인 여인’ 이야기 (유교적 관념과 이데올로기 문제)
- ⑤ 논평
- ① 서문: (b)열녀는 양반 여인들만의 문제다.

21 <열녀함양박씨전>의 구조를 논한 연구에서 서문(①)의 위치를 옮길 수도 있음을 도기한 연구는 성현경밖에 없다. 다만 성현경은 왜 그렇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본고의 주장처럼 서문 내용을 둘로 나눠 보거나 둘 중 하나를 옮겨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못했다. 단순히 <열녀함양박씨전>의 구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표로 제시하면서 서문을 둘째 이야기 앞에 서문처럼 옮겨 볼 수 있는 구조를 도시해 보여주었다. 자세한 것은 성현경, 앞의 논문, 261~265쪽 참조.

그러나 실제 <열녀함양박씨전>의 구성은 위의 <1>, <2>, <3>처럼 내용적 정합성에 따라 구성되지 않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처럼 순차적으로 ①~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작가가 구조화한 데에, 작가 박지원의 고뇌와 그의 글쓰기 전략이

숨어 있다.

〈1〉이든 〈2〉, 〈3〉이든 문제적인 것은 너무 직설적으로 ‘함양 박씨의 죽음이 어리석다’고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그렇게 대놓고 함양 박씨의 자살을 어리석다고 말하면 곤란하다. 이는 첫째 당대 풍속이 된 열녀의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이기에 목민관인 박지원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둘째로 한 여인의 죽음이란 뭐라 말할 수 없는 딱딱한 상황을 앞에 두고 함부로 폄훼하듯 말하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 된 것의 문제 여하를 떠나서 그녀의 죽음을 조의(弔意)하는 자세로서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²² 그렇기에 작가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논평을 서문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이렇게 조직함으로써 드러내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의도하면서도 의도를 의문스럽게 숨기는 언술을 구사한 것이다.

작가 박지원은 안의현 사또로서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 발전시킬 의무가 있었다.²³ 그런 위치에 있는 작가가 풍속이 되어 널리 퍼진 문제를 두고²⁴ 사회 기강을 혼드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일반인이 그러려 해도 그걸 만류하고 가르칠 위치의 그였기에 그는 고뇌가 깊을 수밖에 없었다. 허위의 실재에 사로잡혀 어리석고 허무한 죽음을 택한 상황을 두고 “열녀로군!”이라 탄식한 것은 단순히 함양 박씨만을 향한 것이 아닌 제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의 자책이자 한숨이었을 것이다. 아무도 대놓고 그러지 말라고 말

하지 못하는 세상이기에,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그런 일이 빚어진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피바른 인간들은 알아서 피하고 도망치고 숨는데 순박하고 올곧은 자만 날벼락을 맞은 형세가 벌어지는 비극적 현실을 바라볼 때,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 담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연암이 굳이 〈열녀함양박씨전〉을 저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²⁵ 즉, 굳이 드러내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의 미묘한 글쓰기 방식으로 피해 가면서까지 과잉의 자살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었지만 다루었다는 것에서 작가 박지원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박지원은 함양 박씨의 자살 사건을 접한 후 얼마 안 있어 〈열녀함양박씨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저술했다. 이는 ⑤-a에서 언급한 것처럼, 함양 박씨 사건이 있는 후 함양 군수인 윤광석, 산청 현감 이면제, 거창 신돈항이 “박녀를 위하여 그 절의의 전말을 엮었다”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²⁶ 그런데 이 세 명의 ‘열녀전’은 함양 박씨를 열녀로 칭송하는 내용으로 당대 현실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러할 수밖에 없지만, 그 칭송은 이데올로기적 질곡에 얽매어 죽음을 미화하는 내용이기에 문제적이고, 그 칭송의 열녀전으로 인해 또 다른 함양 박씨와 같은 여인들이 고양될 것이기에 문제적이며, 무엇보다 허위를 내면화함으로써 안타깝게 죽고 만 함양 박씨에 대한 제대로 된 추모와 기억이 아니기에 문제적이다.²⁷ 그래서 박지

22 앞선 연구에서 논의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논점이 혼란스럽게 된 이유가 어느 정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들 역시 함양 박씨의 죽음이란 뭐라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두고 조의의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논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열녀함양박씨전〉에 대한 논의가 모호해지게 된 측면이 깊다.

23 물론 〈열녀함양박씨전〉을 지은 때가 수령에서 물러난 때라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 재직 당시 자신이 풍속교화를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며, 직임에서 물러났다 해도 여전히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24 이때 ‘풍속이 되어 널리 퍼진 문제’는 열녀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열녀임을 드러내려고 양반이든 평민이든 자살을 감행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 역시 연구자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논의하지 못하다 보니, 박지원이 열녀 풍속에 대해 ‘옹호했다’에서부터 ‘비판했다’까지 혼란스러웠다. 박지원은 열녀 풍속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교화되어 자살을 획책하는 풍습을 비판한 것이다.

25 열녀의 자살 문제라는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큰 사달이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다룬 이유, 즉 작가의 창작 이유가 중요하다. 작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저술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삶에서 이렇게 포기하거나 폐기되는 글과 주장은 늘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암이 〈열녀함양박씨전〉을 저술한 이유는 단순한 창작욕이나 성취욕 등과 같은 폐기나 욕망이기보다는 함양 박씨를 향한 잘못된 시선과 함양 박씨의 자살을 빌미로 더욱 강하게 이어질 이데올로기적 질곡에 대해 비판하고자 함이었고, 나아가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성찰하기 위함이었다.

26 김철조, 『燕巖의 〈烈女咸陽朴氏傳〉再考』, 『대동한문학』 24, 대동한학회, 2006, 339~374쪽 참조.

27 박지원이 보기에 함양 박씨의 자살은 잘못된 죽음이 분명하고, 그렇게 죽은 이유는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 관념 때문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함양 박씨에 대한 바른 추모는 그런 질곡으로 죽었음을 분명하게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짓을 거짓으로 두거나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은폐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온당치 못한 행위는

원은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이지만 붓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함양 박씨 문체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²⁸

그래서 작가는 말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기묘한 방식으로 서사를 구조화하여 <열녀함양박씨전>을 형상화해냈다. 그렇게 작가는 표면적으로나 실제로나 ‘함양 박씨는 열녀’지만 그 이면적 의미로 ‘아니 뭐 하러 죽어?’라는 안타까움과 탄식을 <열녀함양박씨전>을 통해 담아냈던 것이다.

3. ‘사실-허구’의 소설적 상상력

박지원은 의도적으로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 깊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글을 써 왔다. <호질(虎叱)>의 경우도 조선 양반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열하일기』 속에서 중국 어느 집에서 본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다. 실제로 그 집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보았을 수도 있고 그것을 조금 확장시켜 창작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소설적 창작인 것이다.²⁹ 허구를 통해 진실을 지향하는 ‘소설적 진실성’을 꾀한 글쓰기 방법은 그의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다.

함양 박씨의 죽음에 대한 모독처럼 여겨질 수 있다.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의 저술 의도와 목적은 함양 박씨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더 이상의 잘못된 죽음이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함양 박씨에 대한 진심 어린 추모와 스스로를 향한 성찰과 자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추모의 마음에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성장한 어느 여인의 죽음에 대한 목민관으로서의 사죄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8 이런 입장에서 가장 앞선 논의 중 하나인 김일근은 “山淸 咸陽 居昌의 隣 邑守令들이 모두 烈女傳을 지었으나 燕巖은 「世人이 朴氏를 爲해서 그 節義만 論할 뿐이지 마침내 그 斷腸의 心淸은 왜 말하지 않는가?」라 빈정대면서 虛飾인 節義는 아랑곳없이 人間性의 幾微를 表現 못하는 銳筆으로써 이 傳을 썼다”고 지적하였다. 김일근, 앞의 논문, 179쪽 참조.

29 성현경, 「〈호질〉의 구조와 원작자-사실의 언어와 허구의 언어」, 『한국학보』 9(2), 일지사, 1983, 2~29쪽; 조경은, 「우연 글쓰기 전략으로서의 〈호질〉 읽기」, 『시학과언어학』 9, 시학과언어학회, 2005, 247~286쪽; 최천집, 「〈호질〉 창작의 연원과 배경」, 『어문론총』 48,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97~132쪽 참조.

<열녀함양박씨전>에서도 실제로 그가 겪은 사건은 함양 박씨 이야기로 안의현 사또이던 계축년(1793년)의 일이다. 일반적인 ‘전(傳)’ 형식이라면 이 함양 박씨 이야기(④)와 논평(⑤) 정도만 서술하면 된다. 굳이 부가하고 싶다면 서문(①) 정도의 내용을 앞이든 뒤에 덧붙여 입전의도를 명확히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입전한다면, 앞서 논의했듯 너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의견 표명이 아닐 수 없다. 즉, “함양 박씨의 자살은 잘못이다”는 의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지원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하나는 엽전 굴리는 이야기(②)를 창작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함양 박씨 이야기(④)에 덧붙여져야 할 내용을 맨 앞의 서문(①)으로 옮겨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절(守節)이나 순절(殉節)이나의 죽음’ 문제,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음’ 문제, ‘양반이나 중인이나’의 계급에 따른 필요성 문제라는 극명한 대조를 꾀함으로써 첨예한 주제 의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를 의도적으로 의문스럽게 숨기는 구성으로 자신의 의도를 펼쳤다.

연암이 엽전 굴리는 이야기를 창작해냈음은 분명하다.³⁰ 이 이야기는 형식적으로도 전통적인 전(傳) 형식을 따르는 함양 박씨 이야기와 다르다.³¹ 내용적으로도 실제 사실이라기보다는 허구적 이야기라는 것은 타당하다. 밤새도록 동전을 굴린다는 애절하고도 서글픈 이야기 속에 담긴 동전이 문양이 사라질 정도로 닳았다는 과장법도 그렇고, 함양 박씨 이야기가 명징한 사실성 부각을 위해 ‘계축년’과 같은 현실로 소환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옛날 어느 고을에’와 같은 식처럼 모호한 시대 배경과 상황을 제시했다는 것을 봐도 그렇다. 즉 사실 전달이라는

30 이 부분(②)이 의도적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은 엽전 굴리는 여인 대목까지를 并序로 보았던 논의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이다.

31 傳과 小説의 형식과 관계에 대해서는 박희병, 앞의 책, 3~422쪽 참조.

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 조선시대 어느 왕 어느 때 특정 어느 시대임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이 자체가 허구적 창작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열린 설정으로 이렇게 허구성을 추구함으로써 소설적 진실성을 지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설(小說) 장르는 해당 글의 전체가 허구성을 지향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해당 내용에 실제 사실을 비롯한 현실에 근거하거나 현실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해도 그것을 소설적 허구성에 종속되어 기여하는 반영론적 측면에서의 기능으로 이해하지, 그것을 실제 사실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즉, 실화가 소설에 반영되었다 해도 해당 글에서는 그 실화 사건을 소설적 창작에 의한 허구로 이해하지 다큐멘터리 같은 사실적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열녀함양박씨전>의 함양 박씨 이야기는 전형적인 전(傳)으로 현실을 사실적으로 전하는 글인데, 이와 동시에 <열녀함양박씨전>에 동전 굴리는 여인 이야기를 창작해 넣음으로써 소설적 상상력을 구사하였다. 결국 그렇게 작가는 ‘전과 소설의 결합적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즉, 엽전 굴리는 이야기만 떼어놓고 보면 소설이라 해도 되고, 함양 박씨 이야기만 놓고 보면 다른 열녀전들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전이다. <열녀함양박씨전>의 독창성은 작가 박지원이 이렇게 소설과 전을 결합하는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를 시도했다는 점이고, 그 이유는 앞서 본 것처럼 당대 열녀 담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담아내기 위해서였다.³²

<열녀함양박씨전>은 우리가 아는 식의 열녀전이 아니다. 함양 박씨를 기리는 열녀전이라면 굳이 ‘병서(并序)’라

는 말을 써가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앞에 서문(①)과 엽전 굴리는 이야기(②)를 넣을 필요가 없다.³³ 그런 첨가는 체언일 뿐만 아니라 엽전 굴리는 여인의 ‘정욕’ 운운 언급은 오히려 문제적이기 때문이다. 말했듯이 함양 박씨는 빈 옷만 지켰을 뿐으로 남녀간의 음양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 본연의 정욕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함양 박씨의 부족함, 아쉬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음양도 모르고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박씨가 인간 본연의 감정도 모르고 죽은 것에 대한 조롱으로까지 비취질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열녀함양박씨전>은 우리가 아는 식의 소설도 아니다. 엽전 굴리는 이야기는 소설적이지만 함양 박씨 이야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소설에는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소설적 형상화를 통해 그럴듯하다고 독자들이 여기도록 ‘개연성’이란 외피를 입고 그려진다. 그러나 함양 박씨의 자살 이야기는 전 형식으로 명징한 사실성을 지향하고 있다. 즉, 작가는 의도적으로 그럴 법하다고 느끼게 하는 허구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노력했다.³⁴ 그렇게 “내가 안의 현감으로 정사를

33 題名을 “열녀함양박씨전 병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현경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성현경, 앞의 논문, 1981, 261~265쪽), 이를 제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열녀함양박씨전”이란 제명 다음에 細注로 “并序”라고 적은 것도 그렇고 『연암집』에 따라 아예 다른 제명인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并序”란 명칭을 운문이 아닌 산문에서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박기석, 앞의 논문, 343~365쪽; 최지녀, 앞의 논문, 165~186쪽 참조). 이 “并序”라는 언급 역시 드러내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작가의 의도적이고 의문스런 글쓰기 방식에 의해 전략적으로 채택된 것이다.

34 이런 점이 소설 <장화홍련전>과 다른 점이다. 즉, 전통놀이 겪었던 실제 사실을 기록한 ‘장화 홍련 이야기’는 실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겠다는 의도로 사실성을 지향한 글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창작한 <장화홍련전>은 사실을 기반으로 허구적 기법을 통해 소설적 진실을 지향한 글이다. 그러므로 ‘장화 홍련 이야기’와 달리 <장화홍련전>은 분명한 소설이다. <장화홍련전>의 내용이나 구절이 실제 사실인 ‘장화 홍련 이야기’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지향이 허구성을 지향하는 소설적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설적 기교를 구사했다는 점이 곧 ‘소설’이란 의미와는 다르다. 현실에서 취사한 사실을 가지고 소설로 형상화하는 이유와 목적은 근본적으로 허구성을 통해 소설적 진실을 지향하기 위해서다. <장화홍련전>의 소설로서의 성립 및 형상화 방법에 대해서는 광보미, 「<장화홍련전>의 형성시기 및 형성과정 再考」, 『한국한문학연구』 90, 한

32 박지원은 양반 열녀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열녀 자체가 완전히 부질없다는 생각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일군의 연구는 이런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동시에 박지원은 양반 아닌 여성의 열녀가 되는 세대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이데올로기적 교화에 젖어 자살까지 감행하는 어리석은 풍속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 다른 일군의 연구는 이런 점에 주목했다. 그랬기에 <열녀함양박씨전>을 둘러싼 연구 시각이 대립적으로 이어졌던 것인데 이는 이렇게 사실적인 傳과 소설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小說을 결합시켰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보던 이듬해 계축년(100쪽)”처럼 사건을 대하는 입장에서 사실을 기록을 하겠다는 태도가 강하게 유지되었던 것이다.

결국,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은 사실[傳 형식]과 허구[小說 형식]를 동시에 결합하여 형상화함으로써 말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미묘한 긴장적 글쓰기의 결과다. 이렇게 사실과 허구의 긴장적 길항을 통해 열녀 되기를 강요하는 세태와 허위에 매몰되어 자발적으로 열녀 되기를 내면화하고 과잉으로 행동하는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비판하고자 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열녀함양박씨전>은 전(傳)도 아니고 소설(小說)도 아닌 독특한 글이다. 이후 이런 유형의 다른 글이 박지원은 물론이고 다른 작가들에서도 없었기에 장르적 명명이 없지만,³⁵ 그렇다고 이를 ‘전’이나 혹은 ‘소설’이라 부를 수는 없다. 이 텍스트를 전이든 소설이든 그렇게 장르적 규정을 내리는 순간, 작가가 의도했던 의미 지향과 주제 의식이 사라지며 열녀 칭송 혹은 비판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굳이 규정한다면 현재로서는 <열녀함양박씨전>을 ‘전과 소설의 결합형’ 정도로 명명할 수밖에 없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적 활용을 위해, 즉 이 <열녀함양박씨전> 텍스트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장르 개념으

로 포착해야 한다면 ‘소설(小說)’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실과 허구의 결합을 통한 소설적 상상력을 촉발했기에 소설에 더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고, 전통적인 전(傳) 장르보다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변주 발전·확장하는 소설(小說) 장르의 내포가 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함양 박씨는 열녀다. 박지원은 그녀가 열녀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열녀로서 자살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죽고 말았다. 박지원은 그런 과도한 죽음은 잘못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죽음은 열녀이기를 강요받는 양반 여인에게도 옳지 않은 행동이다. 그런데 함양 박씨는 열녀임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이 필요 없는 계층임에도 자살을 감행했다. 심하게 말해 함양 박씨는 수절하는 열녀도 될 필요가 없는 여인이었다. 남편이 죽으면 다른 좋은 남편을 찾아 개가해도 되는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열녀인 수절(守節)의 길을 걸었고 그것을 넘어 양반 여성들에게도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순절(殉節)의 길을 택했다. 박지원은 이 점이 안타깝고 괴로웠다. 그런데 이런 박씨를 향한 열녀전들은 모두 그녀를 미화 칭송하는 것으로, 결국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살을 상찬하는 내용이기에 박지원은 <열녀함양박씨전>을 저술했다.

박지원은 남편이 죽은 후 수절하는 열녀 풍습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다. 밤새도록 엽전을 굴리는 여인의 삶처럼 안타깝지만 사회 풍조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역시 여성이 아닌 남성이기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손의 환로 문제와 연결 지은 현실적 사회 체제 속에 살기에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열녀 풍습에 대해 분명하게 오직 양반 계

국한문학회, 2024, 195~226쪽 참조.

35 필자의 과문함이 문제지만 현재까지는 <열녀함양박씨전>을 제외하고는 보지 못했다.

36 傳과 小說 중에 어느 쪽에 더 치우쳤는가를 따지면, 소설적 상상력이 더 우세하기에 小說 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함양 박씨 자살 이야기(④)’만 놓고 보아도 윤광석, 이면제, 신동항이 함양 박씨에 대해 저술한 3편의 다른 열녀전과 비교했을 때 연암의 ‘함양 박씨 자살 이야기’의 독창성이 두드러진다. 전형적인 열녀전 형식이러기보다는 르포나 신문 기사처럼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그 외적 상황을 기록하려는 의도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전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 함양 박씨를 조망함으로써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양 박씨의 자살 문제를 보게 했는데, 이런 거리감이 결국 의도적인 열녀전 입전 방식과 차이를 보이며, 거리를 둔 것으로 함양 박씨의 행동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작가 스스로 해당 사건을 내면화하여 ‘사실(fact)의 의미화’를 꾀하려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려 했다. 물론 ‘함양 박씨 자살 이야기’는 소설은 아니고 전이다. 하지만 전형적인 전의 스타일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열녀 의식에 대해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을 작가인 서술자와 함께 보도록 촉구하려는 전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층의 여성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열녀함양박씨전>을 지을 즈음의 그가 생각하기에³⁷ 열녀 풍습이란 인간 근본의 감정과 욕망을 거스르는 것으로 여성들을 참혹하고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국대전』으로부터 조선 사회 시스템으로 구조화된 체계를 벗어날 수 없기에 여성의 고통을 알면서도 이를 전면 부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양반 여성들이 자살을 감행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엽전 굴리는 여인’처럼 인간으로서 수절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고, ‘환로가 막힐 뻔한 후손을 둔 선대 여인’처럼 현실적으로 주변의 오해와 곡해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여인들이 죽음을 택하는 것에는 반대했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데올로기적 교화에 젖어 극락을 걷는 것처럼 감행하는 자살은 과도하고 문제적이라 비판했다. 고통과 어려움을 알지만 죽음보다는 삶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작가 박지원이 수절하는 여인들을 생각하면 때론 그녀들에게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녀들처럼 인간적 현실적 어려움에 놓이지도 않는 남성이지만, 그래서 더 뭐라 말하기 쉽지 않지만, 그의 입장과 생각은 분명했다. 그래서 자살은 문제적이며 이데올로기에 빠진 과잉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했던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양반 여성도 아닌 계층의 여성들이 수절하는 열녀 풍습을 따른다는 것이었다. 양반 여성이 아니기에 수절도 불필요한 일이었지만, 수절에서 더 나아가 자살을 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까지 빚어지는 현실에 그는 통탄할 수밖에 없었다. 양반 여성들도 자살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열녀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층의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수절과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풍조에 박지원은 붓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데올로

기에 침혹되어 거침없이 자살을 감행하는 세대에 비판을 하기 위해서였고, 동시에 양반 남성이자 목민관인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고백을 담아내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가 <열녀함양박씨전>이고 그 마음이 <열녀함양박씨전>을 저술한 이유이다.

<열녀함양박씨전>은 열녀 의식을 고양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순절(殉節)은 물론이고 수절(守節)도 고양하려는 것이 아니다. 열녀 풍습을 전면 부인한 것이 아니기에 고양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옳지 않다. 박지원은 열녀 풍습을 거부할 수 없는 풍조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열녀 풍습을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높이며 상찬하려고 <열녀함양박씨전>을 저술한 것은 아니다. 그런 반복적 고양은 다른 열녀전으로 충분하고, 함양 박씨를 향한 여러 열녀전에서도³⁸ 답습하고 있는 것이기에 자신까지 끼어들 필요는 없었다. <열녀함양박씨전>의 핵심은 엽전 굴리는 여인 이야기가 아니라 함양 박씨 이야기며, 그건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 극단적 열녀가 되려한 중인 계급 여성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렇게 자살하지 않으면 열녀가 아니란 식으로 팽배해진 당대 열녀 풍조를 비판하려는 목적이었다.

함양 박씨의 자살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박지원은 왜 그녀의 죽음이 옳지 않은지를 강하면서도 미묘하게 설득적으로 말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작가는 소설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실과 허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열녀함양박씨전>을 지었고, 그 결과 텍스트는 전이라 할 수도 없고 소설이라 할 수도 없는 ‘전과 소설의 결합형’이 되었다. 함양박씨의 자살 이야기를 비판하면서도 돌려 말하기 위해 엽전 굴리는 여인 이야기를 창작해서 함양 박씨와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도, 함양 박씨 이야기 뒤에 논평으로 위치해야 할 내용을 서문으로 돌리면서 산문에서 굳이 사용할 필요 없는 “병서(并序)”라는 언급까지 써가며 우회하는 전략적 구조를 사용했다. 그렇게 박지원은 안의현 사또

37 젊은 시절의 박지원의 열녀관에 대해서는 본고의 대상이 아니기에 상론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젊은 시절 어떤 열녀관을 가졌었는지에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이란 늘 유동적이기에, <열녀함양박씨전>을 지을 당시의 열녀관은 해당 텍스트에 드러난 것을 통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38 박지원이 <열녀함양박씨전>에서 언급한 3편 외에 함양 박씨를 입전한 열녀전이 4편 더 있어, 모두 7편이다. 김철조, 앞의 논문, 343쪽 참조.

시절 접한 안타까운 함양 박씨의 자살 사건에 대해 우리
문학사상 가장 독창적인 글을 창작해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박지원, 신호열·김명호역, 『국역 연암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4

2. 단행본 및 논문

- 강명관, 「〈열녀함양박씨전〉재론」, 『동양한문학연구』 32, 동양한학회, 2011.
- 곽보미, 「〈장화홍련전〉의 형성시기 및 형성과정 再考」, 『한국한문학연구』 90, 한국한문학회, 2024.
- 김수중, 「〈열녀함양박씨전〉에 나타난 정절의식 분석」,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2011.
- 김일근, 『燕巖小說의 近代의 性格』, 『어문집』 1, 경북대학교, 1956.
- 김철조, 『燕巖의 〈烈女咸陽朴氏傳〉 再考』, 『대동한문학』 24, 대동한학회, 2006.
- 박기석, 「〈烈女咸陽朴氏傳〉 研究」, 『국어교육』 111, 한국어교육학회, 2003.
- 박수밀, 「〈열녀함양박씨전〉의 구조와 글쓰기 방식」,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 박일용, 「〈烈女咸陽朴氏傳 并序〉의 형상화 방식과 그 장르적 성격」,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양포이상택교수환력기념논총간행회, 집문당, 1998.
-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 성현경, 「〈烈女咸陽朴氏傳〉과 〈烈女咸陽朴氏傳并序〉의 構成」,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 _____, 「〈호질〉의 구조와 원작자-사실의 언어와 허구의 언어」, 『한국학보』 9(2), 일지사, 1983.
- 신항림, 「열녀전의 사회적 역할과 박지원의 〈烈女咸陽朴氏傳〉」, 『동아한학연구』 4,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8.
- 이가원, 『연암소설연구』, 을유문화사, 1963.
- 이승은, 「감정 조작과 과부- 열녀담의 정전화: 〈열녀함양박씨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9.
- 이월영, 「〈열녀함양박씨전〉 연구-문학적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 정보미, 「〈열녀함양박씨전〉의 서술 목적과 서술 방식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41, 2013.
- 조경은, 「우연 글쓰기 전략으로서의 〈호질〉 읽기」, 『시학과언어학』 9, 시학과언어학회, 2005.
- 최지녀, 「〈열녀함양박씨전〉 연구」,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 최천집, 「〈호질〉 창작의 연인과 배경」, 『어문론총』 48,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 _____, 「〈열녀함양박씨전〉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 『문화와융합』 49,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 한동, 「〈烈女咸陽朴氏傳〉의 구조와 정체 재검토」,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3),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Abstract**The Structure of “YeolnyeohamyangParkSejeon” and the Novelistic Imagination of ‘Fact and Fiction’**

Yoo, Gwang-Su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reexamines the content, structure, and generic status of “YeolnyeohamyangParkSejeon” by focusing on the author’s strategic mode of composition. The text has generated diverse interpretations because it brings together multiple issues, including female virtue, chastity ideology, and suicide, while also inviting different perspectives from its historical context, the author Park Ji-won, and later reader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work was not intended to endorse the ideology of the virtuous woman. Rather, Park Ji-won sought to express compassion for a middle-class woman driven by Confucian norms toward self-destruction and to criticize a social ethos that equated female virtue with suicide. The study further shows that the text combines factual and fictional elements in a way that resists classification as either a conventional biography or a novel. Its displaced commentary, inserted contrastive episode, and unusual paratextual framing reveal a deliberately evasive and highly calculated narrative structure.

Keywords “YeolnyeohamyangParkSejeon”, ideology, virtuous woman, ParkChiWon, facts-fiction
